

전주의 다채로운 매력 알린다

파리 '전주 스페셜' ·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 홍보 김승수 전주시장, 한국대표 참석 전주 음식과 한지 전통주 알리기 주력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유럽에 홍보하고, 세계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유럽문화 심장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지는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의 '전주의 날' 행사 참석과 '2018 국제슬로시티 연맹 시장총회' 참석을 위해 20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 시장은 오는 21일 파리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테이스트 코리아 '전주 스페셜' 행사에 참석, 전주 음식과 한지·전통주 등을 선보이며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대한민국 맛의 도시임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는 프랑스에 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로, 전주의 우수한 문화자원이 집중 조

명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어 오는 23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2018 국제슬로시티 연맹 시장총회'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 회원도시를 대표해 '사람이 우선인 도시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 슬로시티'를 주제로 한 영상과 함께 전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는 이번 총회에서 연맹이 수여하는 '2018 국제슬로시티어워드'의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 기관표창 부문 수상도시로 확정됐으며, 김

시장이 전주시민을 대표해 이 상을 수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김 시장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맛과 멋의 도시이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매력을 유럽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슬로시티는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유유자적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1999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시작된 느린 도시를 통한 지역 프로젝트로, 전 세계 30개국 244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송효철 기자

드론예술공연 '꽃심, 나르샤'

전주시, 무형유산원서 내달 7일부터 일주일간 드론기반 융합 미디어아트쇼 공연

시는 오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열쑤 마루 대공연장에서 드론기반 융합 난버벌(비언어적) 미디어아트쇼 드론예술공연 '꽃심, 나르샤'를 공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휴무일인 7월 9일을 제외하고, 평일 1회(19시)와 주말 2회(16시, 19시)로 진행된다.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씨티데이즈와 (주)네온테크의 합작으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이 공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실시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정책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흥시스 및 시나리오 작업, 출연배우 섭외, 무대연출 콘텐츠 개발, ICT 기술융합 등 1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정식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네개의 읍니버스로 구성, 전통예술에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드론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전통과 문화, 현대적 예술과 첨단 미래 기술이 어우러지는 체험과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1막, 세계'는 풍류를 소재로 전주의 사계절과 맛과 멋을 춤과 홀로그램의 인터랙션 퍼포먼스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제2막 꽃심'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창신의 마음으로 꽃심을 뽐내는 드론 모델과 패션모델의 꽃심 런웨이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송효철 기자

이어, '제3막 선비의 방'에서는 곧은 선비정신을 거문고 솔로연주를 시작으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절도 있는 군무를 선보인다. 끝으로, '제4막 난장 서커스'는 모두함께 대동을 모티브로, 신나는 음악과 스트리트 댄스, 동춘 서커스와의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시는 이번 드론 예술공연이 전주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드론 자율주행 군집비행 기술 등 미래형 첨단기술을 활용해 난버벌(비언어적) 현대예술로 승화시킨 드론기반 미디어 아트쇼인 만큼, 향후 전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특화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드론을 전통문화, 예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힘써온 전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다"며 "전주가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이 함께 숨쉬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번 공연이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사회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문화예술 장르와도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에서 드론 군집비행을 활용한 퍼포먼스가 선보인바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29일까지 고등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전주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전주시역 27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만 17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희망학교 및 신청자 접수결과 총 27개 학교에서 1,771명이 신청했으며, 시는 전주시대부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학교를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효철 기자



비를 피하는 방법

시원한 비가 내린 19일 전북대학교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한 학생이 겹옷으로 비를 피하며 교정을 지나고 있다.

덕진구, 시민 안전위해 삼례교 보수·보강 시행

덕진구는 전주 동북부권에 위치한 삼례교(전주에서 삼례방향 구교)의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오는 6월22일부터 7월14일까지 고정식으로 교체하고, 교량 신축이음장치 등을 보수,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앞서 덕진구는 포트홀 발생 등으로 고르지 못한 삼례방향 포장면을 보수·보강, 포장을 완료,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주행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이번 추가 공사를 통해 삼례방향 구교를 최상의 도로환경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그 동안의 중앙분리대는 PE재질 조립식 제품이 설치되어 차량방호 기능이 취약하고 파손 시 고정을 위해 체워놓은 물이 새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 덕진구는 공사기간 중 삼례교 인근 사거리 등지에 공사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 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이 삼례교 전방에 위치한 반월교차로로 우회하여 이산, 논산 방향으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구간 1개 차로씩 교통신호가 이루어진다. /송효철 기자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불안소방서와 소방안전훈련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19일 불안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소방훈련은 불안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진 화재 대비 소방방재훈련 및 전 직원 응급 처치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소방안전훈련 위주로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합동소방훈련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고객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지진 화재에 따른 비상 상황을 설정, 직원들의 초동대응, 숙박객 대피 유도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상황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불안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은 재난발생시 호텔과 소방서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호텔과 불안소방서는 현장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400명 규모의 해나루홀과 올해 신규 리모델링한 모항홀 등 다양한 연회장을 갖추고 있다. 각종 세미나는 물론 컨퍼런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며 전문 코디네이터의 숙련된 노하우와 섬세한 서비스로 각종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신임 전주지검장에 윤용걸 제주지검장 임명

제65대 전주지검 검사장에 윤용걸 제주지검 검사장(52·2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6월22일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 전주지검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찰에 입문, 창원지검 검사와 법무부 검찰과 검

사, 동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인2부장,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업무에 대한 열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검찰 내부에서의 신망이 두터운 윤 신임 지검장은 공안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원만한 인품으로 조직관리에도 탁월하다는 게 내부의 평가다.

한편, 현 송인택 검사장(55·21기)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효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